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2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2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해 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 평양, 도쿄

빛나는 통일의 세기, 위대한 자주의 시대로 기록될 21세기의 두 번째 해를 맞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2001년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를 총화하고 2002년 조국통일운동의 과업을 협의 확정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까운 시기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담아 7천만 겨레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행하자.

6.15 공동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에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 재생의 활로가 담겨 있고 부강 번영할 통일조국의 시간표가 그려져 있다.

외세의 민족분열 책동이 날을 따라 극심해지고 이에 맞서는 전민족적인 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엄숙한 이 시각,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은 민족의 안녕과 번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통일대행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확고히 들고 조국통일의 길을 더욱 힘있게 열어 나가자.

2.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7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자.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민족 자주와 민족 공조이다.

민족 공조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자.

외세와의 공조와 6.15 공동선언, 외세 의존과 민족 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노동자, 농어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동포 대중은 민족 공조의 원칙 아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자.

올해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을 적극화, 활성화하여 6.15 선언 이행의 길에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고, 이 기회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북녘 동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아리랑≫을 관람하면서 우리 민족의 단일심과 역사와 문화전통의 유구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계기가 되게 하자. 7.4 공동성명 발표 30돌과 8.15 광복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통일행사들을 광범하게 진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기간≫을 빛내며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거세 찬 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는 확고한 역사적 대세로 만들자.

3. 6.15 공동선언을 저해하는 반통일 세력과 과감히 맞서 싸우자.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 이래 미일 외세의 반통일 책동은 위험 계선을 넘어 서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도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

외세의 대북강경 책동과 한(조선)반도 내정에 대한 간섭, 분열 기도를 방치한다면 다시금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이며 이를 막아 내지 못한다면 6.15 공동선언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다.

미일 외세의 반통일음모에 맞서 7천만 겨레의 기개와 용기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반미,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반외세 투쟁을 가속화하자.

부시의 새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통일 수구세력을 단죄하자.

6.15 선언이 합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막을 수 없는 민족적 대세로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민족의 대결과 반목, 사대와 외세 의존에서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자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친미반역자들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의 기운을 확산시키자.

반통일수구세력을 단죄하며 연북, 연남, 애국애족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저해하는 일체의 반통일적 제도와 기구를 역사의 오물장 속에 매장하자.

➔ 14면으로 이어집니다

범민련

1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노작

2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2절 상월선생

칭송

6 심장이 뜨거워야 한다
6 2월의 새풍경
6 걸출한 정치가

한국민족민주전선

7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7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0일
8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성취하자
8 이회충에 대한 생각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 2월 20일
10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자 (1)
10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1)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로 이끌어 간 미제호전세력들의 책동과 그 반동성

아리랑뉴스

12 떠난 부시, 끝나지 않은 분노
12 부시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12 미 상의 점거 6명 국보법위반 영장
13 대중참여 후보 단일화 사례
13 최종길교수 의문사폭로 유인물
13 김승일 죽음 의혹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14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공동기조보고
14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금강산 탐방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5)
광고 **15**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조국통일3대헌장 **16**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3)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발췌) / 1956년 4월

동지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의 10년 간의 지배가 초래한 죄악적 결과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생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리승만반동정부가 극소수의 예속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근로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반인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제국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매국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남조선경제를 미국독점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와 통제 하에 내맡겼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인 괴뢰군대를 발광적으로 증강하며 야만적 파쑈통치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일체 중요 경제명맥과 국가경제생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완전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타국에 대한 미국의 소위 ≪경제원조≫는 그 나라에 대한 군사, 정치적 예속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거니와 남조선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로골적이고 철면피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는 그의 대부분은 괴뢰군무장과 군사시설에 충당되였고 나머지는 세계 시장에서 남아 돌아 가는 미국과잉상품의 반입에 배당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원조≫를 밑천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일체 중요생산시설과 경제기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장악하였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들이 조직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괴뢰정권의 일체 산업 및 재정금융정책을 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괴뢰정권은 독자적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과 세금 징수안에 이르기까지도 이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도저히 수립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중석, 동 등의 전략 물자들과 그의 기업체들을 직접적으로 략탈하고 있으며 기타의 중요 생산시설들은 미국 과잉상품으로 실어 온 원료 기자재에 결정적으로 의존케 함으로써 남조선 산업을 마비상태에 빠뜨렸으며 미국 독점자본에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산업에서는 그의 식민지적 예속의 기형성이 더욱 심각화되고 있으며 미국상품의 범람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 기자재의 가격인상과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중소상공업자들이 대량적으로 파산, 령락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근근히 운영되여 오던 면방직공업조차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면제품강제판매와 원면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단한 휴업과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 원조≫와 예속화 정책은 최대한의 리윤을 그들에게 보장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그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치, 군사적 목적을 용이하게 실현케 하여 주고있습니다.

농촌에서 리승만도배는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영향을 받은 남조선농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지주는 없어지고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혹심한 착취와 억압 하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은 농지댓가상환곡, 토지수득세, 량곡의 강제수매 및 소작료 등의 각종 명목에 의하여 년간 총 수확고의 많은 부분을 괴뢰 정부와 지주에게 혹심하게 수탈당하게 됨으로써 소위 분배받은 토지를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고 한 평의 땅도 없는 소작인, 고농으로 전락되거나 리농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농민들은 각종 가렴잡세와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싼 수입비료의 구입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지주와 부농의 채무노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총부채는 1954년 11월 현재로 180억 환에 달하고 있는바 이것은 남조선농민들이 매 호당 평균 8, 791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남조선경제형편이 이와 같이 만회할 수 없는 난국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승만도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괴뢰군증강과 군사기지의 정비확장을 감행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부패한 ≪미국식 생활양식≫이 지배하며 민족적인 모든 것은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사상과 견해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야당파 내의 ≪정객≫들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박탈되고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는 인민의 감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예속자본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 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의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부 인민들은 생존과 자유와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와 리승만도배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 비록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이 고도로 앙양되어 있지는 못하나 그들이 북반부에서 달성된 제 성과에 고무되면서 앞으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진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공화국 남반부의 사태는 대략 이러합니다.

조국의 분렬은 미제국주의와 리승만 도배의 압박 하에 있는 남조선인민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고통과 불행으로 되며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와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지주, 예속자본가, 친미파를 반대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민족적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전체성으로 보아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단계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장기적이고 간고하고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 인민들 특히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 통일독립을 달성하려고 지향하는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 세력을 단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동력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단결된 북반부 인민과 남반력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미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계급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반제 반봉건적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과 직접 련결되여 있으며 미제국주의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적 자유 독립과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이와 같은 국제적 련대성은 우리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장성강화되는 세계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전민족적인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을 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리승만도배의 반동적 매국정권을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현 단계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인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성된 국내외 형편에서 유일하게 가능하고 정당한 로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견지할 것입니다.

정전 후에만 하여도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 남북협상에 대한 제의를 비롯하여 조국전선과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의 성명, 결의 등의 각종 구체적인 조국통일방

조선인민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지주, 예속자본가, 친미파를 반대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민족적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전체성으로 보아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 단계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장기적이고 간고하고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책들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의 충복 리승만도배는 자기 상전의 의사에 추종하여 우리의 조국통일방안들을 모조리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사건을 계속 일으키며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요구하며 또 다시 동족상쟁을 재발하기 위하여 소위 ≪북벌≫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으로 파쇼경찰기구를 더욱 강화하며 남반부의 일체 애국적력량에 대하여 가혹하게 탄압하며 자기 계열 아닌 모든 당파와 인사들을 국가정치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갖은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승만 도배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반대하고 온갖 매국적 행동을 감행한다고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 학생, 과학자, 문화인, 량심있는 모든 애국인사들이 평화적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며 리승만도배의 반인민적, 매국적 죄악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남반부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세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리승만통치에 대한 불만과 곤경에 빠진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여 나서는 인사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저명한 정치 활동가들이였던 김구, 김규식 선생들과 같이 남북조선의 협상을 지지하여 나서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1948년 4월 남북 련석회의와 같은 그러한 력사적 회합을 가져야 한다는 지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애국적 행동을 열렬히 환영 지지하며 이들과 어느 때라도 련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대처하여 우리는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를 더욱 고립시키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력량의 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충복 리승만도배의 파쑈적 독재 하에서 남반부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허용되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당면한 투쟁구호의 하나는 남반부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며 일체 애국적인 정당, 사화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에게는 재산의 다소, 지식의 유무, 신앙과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함으로써 남조선국회에는 주민의 다쑤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또한 국회는 각계 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광범한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제와 리승만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의 부패한 정치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 역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파탄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민족산업의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국독점자본의 투하와 외국과잉상품의 강제수입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의 장성과 물가폭등을 방지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며 그들에 대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토지 및 량곡 수탈 정책과 살인적인 고리대의 착취와 각종 형태의 가렴잡세를 반대하며 매년 증가되는 절량농가, 리농가들을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하여야 하며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이 가지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제독점자본가, 예속자본가들의 압박으로부터 중소상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금의 융자, 원료 구득 및 판매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공통한 목적 밑에 남조선에 있는 일체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며 또한 그들과 련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련합을 실현하고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며 아직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는 개별적인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 인사들과의 회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련합에 참가하는 사람은 만일과거에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여 줄 것이며 그의 공로와 재능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는 차후 수립될 련합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 것이며 그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와 남북 간의 왕래 및 통신의 교환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반부인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전력과 석탄, 목재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목적 밑에서 북반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대표단과 개별적 인사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북반부에서 그들의 활동의 모든 자유와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북 간의 접촉을 추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토의하며 그의 실지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기관에는 남북조선에서 동등한 비례로 정부, 최고립법기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무소속 인사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성된 조건 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만약 쌍방이 조선인민의 념원에 대답할 성의가 있다면 능히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술한 우리의 모든 제안과 주장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의 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군사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평화건설에 돌리기 위하여 쌍방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북조선의 어느 한 부분도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인입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단독군사조약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철퇴시키며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국의 일체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남북조선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지 조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투쟁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 세대의 행복과 우리의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쟁로선을 견지하고 이를 위하여 완강하게 싸우는 한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으로부터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며 또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불패의 력량으로 될 것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승리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2. 상월선생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라면 고리끼의 ≪어머니≫와 ≪홍루몽≫을 소개해준 사람은 상월선생이였다. 상월선생은 육문중학교의 어문교원이였다.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의 교원으로 부임되어온 것은 1928년 2월경이였다. 베이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새 어문교원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어문시간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신임교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가닥의 불안도 없지 않았다. 교육청이 특무를 어문교원으로 배치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였다. 교육청이 파견하는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군벌당국에 매수된 불순분자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는 장학량이 장개석의 지령에 따라 만주땅에 국민당기발을 날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장개석의 특무조직들이 벌써 심양으로부터 길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국민당의 졸개들이 아직 육문중학교를 완전히 자기네 수중에 장악하지 못하였지만 혁신사상이 강한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군벌과 그 앞잡이들의 주시속에 있었다. 이런 때에 새 교원이 배치되어왔으므로 학생들은 신경을 잔뜩 도사리고 어문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월선생은 단 한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경계심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인기를 독점하였다. 그는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한시간사이에 다 소화시키였다.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솜씨가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우리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은 생리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가문의 고락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상월선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학생들은 육문중학교에 보배가 굴러들어왔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리였다. 그런데 선생이 ≪홍루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해서는 적게 소개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운동장둘레를 산책하는 상월선생을 찾아가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은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작가의 경력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조설근에 생애와 집안래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상월선생

선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자리에서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 성격간의 호상관계를 두고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선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계급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였다. 그 실례로 그는 바로 조설근을 들었다. 그가 강희제의 틀별대우를 받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라났지만 붕괴기에 있는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줄수 있은 것은 세계관이 진보적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상월선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성주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의문되는 것이 있거나 해명하고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원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을 탐구하는데서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제기하라.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질문을 많이 하라는 상월선생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원래 나는 소학교시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있었다. 육문중학교에 와서도 질문을 많이 하여 교원들을 성가시게 굴었다.

상월선생은 자기에게 ≪홍루몽≫도 있고 조설근의 략력을 발취해놓은 자료집도 있으니 보고싶거든 아무때나 와서 가져라가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첫 손님으로 선생의 숙소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학생이 선생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씀하였다. 서당에서 ≪동몽선습≫같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 구세대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식학문의 덕으로 개명을 했다는 어른들가운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생이 선생의 뒤생활을 자주 엿보게 되면 스승을 신비스럽게 대하지 않는다, 선생은 언제나 학생이 스승을 밥도 먹지 않고 오줌도 누지 않는 신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 그러자면 병풍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였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서당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다니던 순화서당에 김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훈장이 있었다. 그 훈장은 술이라면 감투가 벗어진줄도 모르는 애주가였다. 그는 사흘이 멀다하게 접장(지금의 학급반장)을 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술심부름을 시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고분고분 훈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훈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랑창에 쓰러진 것을 보고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어느날 훈장은 되병 한개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쥐여주며 또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서당문을 나선 아버지는 바위돌에 되병을 던져 박살내고 훈장한테 돌아가 범한테 쫓기다가 돌에 넘어져 술병을 깼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훈장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 ≪허허, 백두산범이 만경대에까지 내려왔다. 형직이가 나한테 대포를 불지경이 되었으니 내 꼬락서니가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였을가. 너희들한테 술심부름을 시킨 내가 잘못이지.≫ 하였다. 그후부터 훈장은 술을 끊었다. 훈장은 술과 결별하였지만 아버지의 머리에는 개울창에 쓰러져 술내를 풍기던 선생의 모습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병풍을 치고 살아야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지론은 이런 사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이 병풍을 칠 사이도 없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개방해보이지 않았다는 선생의 생활종심에로 풍덩 뛰어들었다. 선생의 서가에는 수백권의 책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서가들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채로운 서가였다. 상월선생은 책부자였다. 그 서가에는 영문으로 된 소설책들과 전기문학작품들도 많았다. 나는 그 서가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뗄수 없었다.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 것으로 되지 않을가,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대로 뽑아보다가 선생에게 물었다.

≪실례이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해나 걸렸습니까?≫

상월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서가앞에 다가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10년쯤 걸린것 같애.≫

≪이 책들을 다 읽는데는 얼마만큼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까?≫

≪부지런하면 삼년, 게으르면 백년.≫

≪책만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건부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야. 나는 오래전부터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가후비를 한두명 키우려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없겠는가 하는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리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 것입니다.≫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끄덕이다가 내곁에 다가와 어깨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리상이라면 나는 그 리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나는 그날 ≪홍루몽≫을 빌려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월선생이 나에게 두번째로 빌려준 책은 장광자의 소설≪압록강가에서≫와 ≪소년방랑자≫였다.

나는 이 두 소설을 매우 흥미있게 읽었다. 리맹한과 운고라는 조선의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압록강가에서≫는 특히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후에는 고리끼의 ≪어머니≫를 빌려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책과 문학을 통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상월선생은 내가 요구하는 책이면 무엇이든지 다 빌려주었다. 자기의 서가에 없는 책은 품을 내여 다른데 가서 구해다주었다. 선생은 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나에게서 독후감을 꼭꼭 들어보군 하였다.

우리는 고리끼의 작품 ≪원쑤들≫과 로신의 소설 ≪축복≫을 두고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는 과정에 나와 상월선생은 자연히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였다. 우리의 담화에서 초점을 이룬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 것이였다. 우리는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며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월선생은 문학이 인류를 지성에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였다. 기계가 생산의 발전을 추동한다면 문학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켜준다고 선생은 늘 말하군 하였다. 상월선생은 로신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선생은 로신의 문우였고 로신이 지도한 문학소조의 한 성원이였다. 선생이 소조활동을 할 때 쓴 단편소설≪도끼등≫은 로신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소설은 봉건유습을 반대하는 라산지방 인민들의 투쟁을 담고 있었다. 상월선생의 딸 상효원의 말에 의하면 로신은

➡

≪도끼등≫을 읽고 예리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였다고 한다.

상월선생은 초기의 창작에서 나타난 미숙성을 극복하고 1930년대에는 ≪예모≫와 같이 사상예술적으로 세련된 작품을 창작하여 독자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장편소설은 그 당시 운남성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련재되었다. 1980년대에 중국인민문학출판사에서는 ≪예모≫를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상월선생은 ≪예모≫, ≪도끼등≫외에도 장편소설 ≪창≫과 ≪개문제≫를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선생은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작가적 사색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선생이 초기에 나를 문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상월선생한테서 ≪진독수선집≫까지 빌려다보았다. 진독수는 중국공산당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중국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상월선생은 처음에 그 책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칫하면 진독수의 우경적 투항주의로선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자기가 베이징대학을 다니기전에 진독수가 그 대학에서 문학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교직원, 학생들이 그가 자기네 대학출신인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동안은 진독수를 숭배하였소. 그가 발간한 ≪신청년≫잡지와 그의 초기론문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렸더랬지. 그런데 지금은 진독수에 대한 나의 견해에도 변화가 생기였소.≫

상월선생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5.4운동시기와 공산당창당초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진독수의 인기가 여지없이 폭락된 것은 그가 우경기회주의로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진독수의 기회주의적 오유는 농민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쓰딸린은 벌써 1926년에 농민은 중국의 반제국주의전선에서 기본력량이며 로동계급의 가장 주요하고 믿음직한 동맹군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독수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그는 농민이 토호출신들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농민이 행정을 간섭하는 것과 농민의 적극적인 자위를 반대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민투쟁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진독수의 오유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농촌혁명을 반대하면서 부르죠아지가 혁명전선에서 떨어져나갈가봐 두려워한데 있다. 그의 투항주의적 로선은 오히려 혁명에 대한 부르죠아지들의 배신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이 진독수에 대한 상월선생의 견해였다.

선생이 정당하게 말한 바와 같이 진독수의 글들에는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줄수 있는 투항주의적 요소들이 있었다.

나는 ≪진독수선집≫을 읽은 다음 상월선생과 함께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한 장시간의 담화를 하였다. 그 담화과정에서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서 농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의 공통성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농민문제에 대한 레닌의 전략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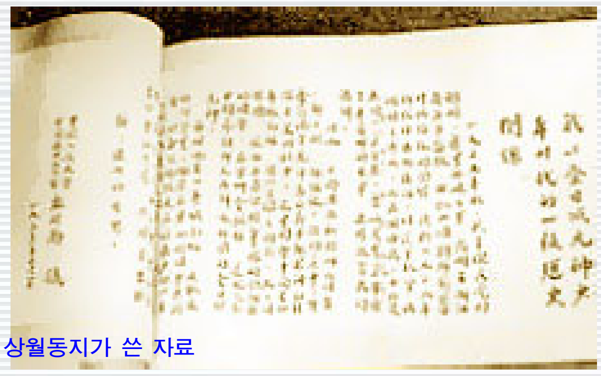
나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인 것처럼 농민을 천하지대군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말을 긍정하면서 농민을 경시하는 것은 곧 농사를 경시하고 땅을 경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리념을 가진 혁명을 하여도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은 진독수의 오유가 바로 이 리치를 망각한데 있다고 부언하였다.

나는 이런 담화까지 하고나서 상월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시에 상월선생도 내가 공청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상월선생은 192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다가 국민당반동군벌에게 체포된 선생은 전강성륙군감옥에서 1년 남짓하게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1928년초에 조선인군의의 도움으로 보석출옥한 후 사주우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만주지방에 와서 초도남이란 사람의 소개를 받아 길림육문중학교에 입직하였다.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다음부터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정치문제에 대한 론의를 자주하였다. 그 당시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정치론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도 대혁명시기이고 조선도 대중운동이



상월동지가 쓴 자료

앙양되고 있던 시기여서 론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문제점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조선청년들속에서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라 격렬한 론쟁을 불러일으키던 시기도 바로 이무렵이었다. 많은 청년학생들은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에게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상월선생은 그때 안중근의 소행은 물론 애국적이다, 하지만 투쟁방법은 모험주의적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그 대답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큰 군벌의 앞잡이 한두명을 처단하는 테로적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전민을 궐기시킬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일제의 조선침략력사와 조선에서의 식민지정책,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기도와 군벌들의 동향, 반제반침략투쟁에서 조중인민의 단결과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당시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군비축소와 관련된 ≪국제련맹≫의 태도를 두고 많은 론의를 하였다. 학생들가운데는 ≪국제련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국제련맹≫이 군비축소문제를 가지고 가짜흥정을 한다는 론문을 써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론문을 지지하였다. 상월선생도 그 글을 보고 나의 견해가 옳다고 말하였다.

상월선생은 길림에 온후 공산당과의 조직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고리끼, 로신 등 진보적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설하는 계몽식강의를 여러차례에 걸쳐 하였다. 언제인가는 비밀독서조성원들의 제의를 받고 학교도서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제목으로 한주일동안 특별강의를 해주었다. 이 강의를 받은 학생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 반영을 수집하여 상월선생을 고무해주었다. 사상의 진보성과 후대교육에서의 높은 책임성, 동서고금의 문화와 력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으로 하여 상월선생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월선생의 교권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상월선생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학생들도 그들이 모해하고 시샘하는 대상이 되었다. 풍가성을 가진 교원은 리광한교장에게 조선학생들을 퇴학시키라고 위협하였고 체육주임 마가는 조선학생들이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한다고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꾀하였다.

그때마다 상월선생은 나를 비호해나섰다. 영어교원도 새 사조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그 교원은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사람들을 깔보다 못해 서양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국사람들은 소리를 몹시 낸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개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사람이면서도 서양인처럼 행세하였다. 그가 동양사람들의 후진성을 두고 야비한 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당번을 서는 날 일부러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먹다나니 그날 식사시간에는 온 식당안에 후르륵후르륵하는 소리가 가득찼다. 영어교원도 후르륵후르륵하는 소리를 내면서 우동을 먹었다.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힘들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식당이 떠나가게 웃었다. 영어교원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우동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얼굴이 시뻘개서 식당에서 달아나버리었다. 그후부터 그는 동양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 선생이 사대주의를 너무 하기 때문에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상월선생에 대한 반동교원들의 압력은 1929년에 들어와서 더욱더 우심해졌다. 한번은 상월선생이 체육은 선수본위로 하는 것보다 군중화할수록 좋다는 선전을 하였다. 그것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롱구장을 선수들만 독점하는 현상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불량선수들은 방과후 숙소에서 교사로 돌아오는 상월선생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무리로 날려들었다.

나는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시켜 불량선수들의 폭행을 미연에 저지시키고 그들을 되게 꾸짖어 쫓아버리었다.

≪마체육주임이 졸개들을 잘 길러냈군. 벌거지만도 못한 녀석들.≫

상월선생은 꽁무니를 빼는 불량선수들을 덤덤히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선생님, 너무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첨예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선생은 그 말을 수긍하였다. ≪그래, 옳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군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상월선생은 그후 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게 출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철직되어 육문중학교를 떠나갔다.

장춘과 카륜 지방에 가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학교에 돌아오니 권태석이 뛰어와서 상월선생이 남기고간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는 나는 군벌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 떠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군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조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어 한생을 살기로 결심한 성주의 리념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주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보낼것이다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남긴 상월선생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후 나는 상월선생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다만 선생이 1955년 나에게 보내준 글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력사적 관계≫와 1980년에 보내준 ≪중국력사강요≫를 받아보고 선생이 생존해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때 그 글을 보고 상월선생과 함께 조선정세와 만주정세, 일제의 침략정책과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을 론하던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로스승에게 충심으로 되는 마음속 감사를 드리었다.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상월선생의 안부를 묻군 하였다. 하지만 선생과의 상봉은 아쉽게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나로서는 옛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경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상월선생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2년에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 중국과학원 력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은 상월선생의 맏딸 상가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고 1990년에는 셋째딸 상효원이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 상효원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60년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만일 육문중학교 교정이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만발하는 정향나무꽃잎들을 한줌가득 뜯어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꽃이다. 상월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밑에서 자주 만났다.≫하고 말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길림을 떠난 상월선생은 할빈, 상해, 베이징, 한구, 중경, 녕하, 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문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한때는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고 한다. 그는 생애의 말년까지 나를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친근한 린방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주의적 감정에 충실하였다. 상월선생의 유해는 지금 베이징의 팔보산렬사릉에 안장되어있다.

사람에게 한생을 두고 회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한다.

일화

심장이 뜨거워야 한다

1970년의 한해도 저물어가던 12월 어느 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꾼을 만나시어 작가들의 생활을 요해하시다가 명망 있는 한 노작가의 가정에 생긴 불행을 알게 되시었다. 그 불행인즉 작가의 부인이 불치의 병에 걸리어 앓고 있는 것이었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장군님께서는 얼굴에 그늘을 지으시며 그래 병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고 물으시었다. 물으심을 받은 일꾼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전문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손조차 댈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씀 올리었다.

장군님께서는 몹시도 놀라시며 그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가 불치의 병이라도 손이야 써봐야 하지 않겠는가고 심려깊이 말씀하시었다. 너무도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일꾼은 어떤 소문난 동의사의 말에 의하면 어느 한 산짐승이 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희귀한 그 산짐승은 잡기 힘든 것이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꾼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그 짐승을 우리가 잡아봅시다, 혁명동지를 위한 일인데 천리라도 가서 꼭 잡아냅시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고지식한 사람이 그런 불행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걱정할가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남모르는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많았겠는가고 하시며 이 밤에도 작가동무는 그 괴로움을 창작적 열정으로 날려 버리며 글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고 그 밤으로 일꾼들을 데리시고 사냥을 떠나시었다.

원래 그 산짐승은 한 겨울에는 으슥한 곳에 들어박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다하는 사냥꾼들도 이 계절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밝은 대낮도 아니고 험한 밤길을 헤치며 산짐승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길 아닌 길을 누벼나가시며 새벽까지 사냥을 계속 하시었다. 하지만 이날의 사냥은 그 산짐승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단념하지 않으시고 며칠 후 눈보라 사나운 한 밤중에 다시금 일꾼들을 데리시고 사냥 길에 나서시었다. 이날 사냥은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동녘하늘이 푸름 푸름 밝아올 무렵 여러 마리의 산짐승을 차에 싣고 평양에 돌아온 그이께서는 작가의 집에 가져다주라고 이르시었다.

그날 아침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무에 전념하시다가 사냥에 함께 나갔던 한 일꾼을 부르시어 잡아온 산짐승을 작가의 집에 가져다주었는가 알아보시었다. 그런데 그 일꾼은 아침에 제기된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때까지도 산짐승을 작가의 집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었다. 제기된 일을 처리하고 오후에 가져다주려고 한다는 일꾼의 말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요 환자가 애타게 찾는 약재인데 오후에 가져다주다니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안광에는 여느 때 없는 노여움이 어리어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는 근엄하신 음성으로 혁명동지의 생사와 관련되는 문제를 그렇게 늦잡다니 …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동무는 한나절쯤 늦어진다고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그렇게 뜨겁지 못한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질책하시었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던 그 일꾼은 모진 자책을 참을 수 없는 듯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값싼 눈물로는 얼음같이 찬 심장을 덥힐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심각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른 일은 뒤로 미루어도 좋으니 즉시에 그 산짐승들을 작가의 집으로 가져다주라고 거듭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겁고 지극한 사랑이 그대로 불사약이 되어 난치의 병으로 절망에 빠졌던 작가의 아내는 기적과도 같이 건강을 되찾았다.

송시

2월의 새풍경

동대문시장에서도 탑골공원에서도
예전처럼 소곤소곤 귀속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놓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2월 16일
김정일장군님 탄생일이라고

서울의 대학생도 울산의 노동자도
예전처럼 조심조심 눈치보며 아니라
이제는 주저없이 속을 터놓습니다
저 철책선만 아니라면
장군님생신날 평양으로 달려가
삼가 인사를 올리는건데

저것 보세요 거리와 마을들에 하얗게 깔린
2월 명절 경하의 전단들
다투어 집어보는 사람들 손길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장군님칭송의 비디오를 보며
환성을 터치는 집들의 창가마다
예전처럼 커튼을 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남도 이제는 어디가나 장군님세상입니다
경향에 펼쳐지는 2월의 새풍경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이 그려낸
역사의 진실한 명화폭입니다

흠모

걸출한 정치가

-**김정일**동지는 오랜 정치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정치원로이시다.

-오늘 세계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하고 있는것은 현세계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지난해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쑤니트 쵸프라와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 책임주필 유리 이쥬모브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뛰여난 정치실력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한 말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까지 30년동안에만 도 ≪주체사상에 대하여≫,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890여건의 주요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리시고 그 어떤 정치적동란속에서도 끄떡 없는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였다.

조선식사회주의의 공고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1990년대에 뚜렷이 증명되였다.

급변하는 세계정치정세와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난관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조선은 동요없이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 갔다. 오히려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 졌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인류의 자주위업도 크게 전진하였다.

세계 진보적인사들이 ≪20세기 공산당선언≫으로 간주하고 있는 ≪평양선언≫(1992. 4)의 발표는 그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지금까지 이에 서명한 정당들의 수는 250여개에 달한다.

그이께서는 최근년간에도 6.15북남공동선언과 조로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시였다.

구국의 소리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주체91(2002)년 2월19일 서 울

오늘 우리 민중은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을 안고 주석님의 고전적 노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발표 1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92년 2월 20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효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어버이 주석님께서는 외세에 의해 빚어진 나라의 분열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자주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며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은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정신으로 일관된 위대한 주석님의 저작은 우리 겨레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하여 내디딘 귀중한 첫걸음을 내일의 통일에로 이어갈 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정당한 지침이다.

그러나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발효이후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가르치심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주석님의 생전의 염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줄기차게 전진하며 승리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담력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안겨주신 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업적이다.

우리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불태우며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 관철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각계층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의지와 통일열기를 과감히 분출시켜 올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전국민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주체91, 2월 19일

얼마전에 이북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며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주장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숙원인 동시에 민족사적 과제이다.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더이상 분열의 아픔을 감수할수 없고 외세에 의해 찢어진 이 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조국통일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투쟁이다. 따라서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애국투쟁에 나서야한다. 그리고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나타나 독기를 내뿜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위해 손잡아야할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범민련 남측본부나 한총련과 같은 애국운동단체들에 이적딱지를 붙여놓고 그들의 통일애국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평양축전방북과정에 북측 범민련측과 무릎을 맞대고 통일문제를 논의했다고해서 문재룡씨 등 남측 범민련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판결문이라는데서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보아야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했는데 이건 철두철미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도전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돌아앉아서는 통일운동단체들과 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건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오늘날 온 겨레와 평화애호적인 세계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이며 그런 자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수 없고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은 제거되고 그들의 활동은 보장돼야한다.

반통일분열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통일의 새봄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우리 민중은 통일운동단체들의 의로운 애국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며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모두다 동참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0일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가 지난 18일 남과 북, 해외에서 모사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의장단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02년 범민련운동방향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제에 대한 공동기조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라며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이 날로 고조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확고히 거머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단위에서 진행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결의문은 남북당국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동포대중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밑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며 올해에 6.15공동선언발표 2돌과 7.4공동성명발표 30돌, 8.15 등 여러 계기들에 지역별 실정에 걸맞는 통일행사들을 광범히 진행하여 7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변화된 요구에 걸맞게 범민련의 지역조직들과 기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상호연계와 단합을 강화하여 범민련운동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룩함으로써 2002년을 조국통일역사에 기리 빛날 위대한 전진의 해, 결정적 도약의 해로 장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시행각반대집회 잇따라

부시가 방한한 19일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행각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4개 단체는 19일 오후 성남비행장 정문앞에서 부시의 행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 한반도전쟁위협중지와 전쟁무기강매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양민학살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회원 100여명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학살진상규명대회를 갖고 노근리학살을 비롯한 6.25전쟁당시 민간인학살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계도 각각 부시 대북강경정책규탄기독인대회와 한반도평화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불교인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미대사관앞과 서울 다동에서 집회를 열고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고 에프15전투기주문을 반대했습니다.

부시방한반대 플랭카드 서울대학교

19일 오전 서울대학교 정문위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형 플랭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제작한 이 대형 플랭카드에는 찢어진 성조기그림과 함께 전쟁반대, 부시방한반대라는 구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국민에게 드리는 격문 범청학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는 19일 부시의 행각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드리는 격문을 냈습니다.

격문은 60여개의 각계 사회시민단체들이 부시의 행각을 반대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부시를 악의 화신으로 낙인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항의해 나서고 있는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격문은 전쟁과 분단의 축, 부시의 대북책동을 분쇄할 것을 주장하며 부시는 ≪악의 축≫발언, 양민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미사일방어체제강요와 무기강매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격문은 부시의 전쟁책동에 동조하는 사대매국노 이회창을 척결할 것과 전국민이 떨쳐 일어나 부시를 물리치고 자주통일로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미공조체제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성취하자

석 학 /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주체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동선언의 근본핵이며 기본정신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외세는 민족분열의 장본인, 조국통일의 방해자이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반드시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외세는 결코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날 남북대화의 역사는 민족끼리 아무리 통일을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룩해 냈다 해도 외세에 의존하면 그것이 빈종잇장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사상이 가져오는 결과는 엄중하다.

지난날 이 땅에서 감행된 사대와 외세의존책동은 외세의 침략성과 전횡만을 더 크게 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앞길을 걸음마다 방해하였다.

오늘의 현실도 그렇다. 지금 이 땅의 반통일분자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반통일의 길로 나가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미제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공동선언을 말살해 보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그들은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걸고 북에 대한 ≪강경≫을 떠들며 북을 반대하는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 한반도정세를 긴장격화와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좋게 발전해 오던 남북관계는 삽시에 냉각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반통일분자들이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자기 동족과의 공조는 반대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한 결과는 바로 이러하다. 따라서 온 민족은 사대와 외세와의 공조를 분쇄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분열의 길, 망국의 길이다.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은 매국배족행위이다. 그러한 매국배족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온 민족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중은 단호하고 완강한 조국통일투쟁으로 한미공조체제를 분쇄하고 민족공조로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회충에 대한 생각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2월 15일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제때에 구충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데요. 외세의 겨드랑이에 붙어 동족에 폐해를 주는 정치기생충도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민족이 피해를 입게 돼죠. 이회창이 바로 민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치간상배, 기생충이라고 할겁니다.

언론인 김종식씨의 글 ≪이회충에 대한 생각≫을 김현규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나는 동작구에 사는 한 친구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동작대교를 지나 그의 집에 다다른 것은 한낮이 거의 저물어서였다.

나를 반갑게 맞이한 친구는 자기방으로 안내하더니 곧 컴퓨터스위치를 넣는 것이였다. 나는 이 친구 무슨 좋은 것이 실렸기에 이렇게 **까지 했나하 는 의아심을 안고 화면에 펼쳐진 인터넷 피시통신게시판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의 시야에 ≪한나라당 총재 이회충≫ 이런 문구가 안겨왔기 때문이다.

≪아니 뭐? 한나라당 총재 이회충?≫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회창≫이 아니라 분명히 ≪이회충≫이였다.

≪아니, 이회창을 이회충이라고 하다니?≫

내가 이렇게 반문하자 친구는 웃으며

≪잘못됐어요. 필름이≫ 하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요즘 항간에서는 이회창을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이≫와 ≪회충≫에 비유해 그의 성과 이름을 ≪이회충≫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이였다.

사람의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이≫ 그리고 내장에 기생하며 영양소를 빨아먹으며 사는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회충≫. 새길수록 너무도 그럴듯한 이유여서 나는 ≪정말 신통한 별호야≫하며 무릎을 쳤다.

외세의 사타구니에 붙어 동족을 반대하고 자주통일을 반대하는 사대매국노, 야당총재 모자를 쓰고 온갖 부정협잡으로 국민의 혈세를 긁어모은 흡혈귀, 대권욕에 환장하여 권력싸움, 당파싸움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추악한 정치사기꾼 이회창, 이런 자를 이나 회충에 비유한 것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몸에 붙은 기생충은 하루속히 없애지 않으면 인체를 좀먹고 종당에는 목숨까지 앗아갈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회창같은 정치기생충을 박멸하지 않으면 국민이 녹아나고 민족이 피해를 입는다.

우리 국민은 일심협력으로 백해무익한 인간쓰레기 이회충을 이 땅에서 척결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구충운동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

민족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회창같은 정치간상배, 인간기생충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겁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0일

은정어린 생일상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강명옥과 함흥시에서 살고 있는 김연옥에게 보내신 은정어린 생일 일흔돐상이 전달되였다.

강명옥은 조국광복후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새 삶을 마련해 준 고마운 우리 제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왔다. 전후 그는 농업협동조합 작업반장과 리녀맹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농사일에 모든 것을 바쳐 왔으며 그후에는 관리위원장으로 40여년동안 일해 오면서 농장의 알곡생산과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는 이 나날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 났다.

김연옥도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제대된 후에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기관들에서 당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 일흔돐상을 받아 안은 강명옥과 김연옥은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에 이바지해 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5일 수리아인민군 사령관 소장 모함메드 이브라힘 알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선물을 이 나라 주재 조선대사관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앞으로도 언제나 반미투쟁에서 련전련승하시기를 축원하여 용감성의 상징인 ≪아랍장검≫을 선물로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께서 강성대국건설과 조선의 통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중국길림육문중학교 교장과 당서기를 비롯한 책임일군들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료녕대학전 총장인 중국 료녕동북아경제문화촉진회 회장 풍옥충, 수리아 디마스끄농촌도지사 쑤브히 하미디, 아랍사회부흥당 디마스끄농촌도위원회 비서 다아스 잇자앗딘, 이딸리아 정계인사 죠르죠 뻴리지, 중국 홍콩의 엠페로그룹 위원장 양수정, 동풍그룹 사장 정동, 도이췰란드기업가 프란츠-디테르 쉴락캄프-데쏘예도 선물을 드리였다.

외국인들 시 창작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하여 외국인들이 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

로씨야사람인 슈떼닌꼬브 알렉싼드르 쎄르게비치는 ≪영광의 호수≫라는 제목의 시에서 씨비리의 대자연호수 바이깔호를 통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흠모하는 로씨야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의 나날 바이깔호를 지나 가시는곳마다에서 로조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고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실때 세계는 격정의 환호를 터쳤고 그이께 영광을 드리였다고 썼다.

네팔사람인 데에 파크 샤르마는 ≪**김정일**령도자≫라는 시에서 **김정일**령도자를 저 하늘의 빛나는 태양으로, 밝은 달로 칭송하였다. 그는 시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인류에게 새 아침을 안겨 주시고 희망찬 새 시대를 안아 오신 인류의 행복이시고 아름다운 세계의 미래이시라고 하면서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세계력사를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저 하늘의 빛나는 태양으로 격찬하였다.

2.16경축행사 진행 해외동포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로씨야고통련의 주최로 모스크바에서는 경축집회가, 국제고통련과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의 주최로 따슈껜뜨에서는 경축공연이, 재미동포전국련합회에서는 경축보고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국과 인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쌓아 올리신 업적을 칭송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축집회와 보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페막

지난 13일 개막되였던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가 20일 인민대학습당에서 페막되였다. 70여개의 단체와 개별적인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1만 4, 3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였다.

전시회기간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하여 60여만명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전시회장을 돌아 보았다.

또한 80여개의 외국대표단들과 많은 해외동포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과 개인들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공로상, 로력상등이 수여되였다.

페막식에는 홍성남내각총리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로동신문≫ 20일부는 최근 미국의 군사, 외교부문 관계자들이 ≪일반서신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을 ≪대량파괴무기의 개발보유국≫으로 몰아 붙인 부쉬의 망발을 되풀이하면서 위협해 나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론평을 실었다.

람스펠드는 우리 공화국의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 ≪군사력도 행사≫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포웰은 ≪선제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자기의 일방적인 군비확장과 대량파괴무기의 위험성은 당반우에 올려 놓고 있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법도 도덕도 안중에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날치는 최대의 불량배국가이다. 그런 미국이 우리에게 생트집을 걸어 군사력행사니, 선제공격이니 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신성한 조국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을 천백배의 보복타격으로 모조리 쓸어 버릴것이다. 미국의 호전세력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전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부질 없는 위협소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

미군의 범죄행위를 규탄한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지뗀드라 샤르마가 조선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군이 조선전쟁기간 공장과 교육기관들, 농경지들을 파괴하고 세균탄, 화학탄을 투하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대량학살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해 6월 뉴욕에서 있은 국제전범법정에서는 미군이 비단 조선전쟁시기뿐아니라 남조선강점부터 오늘까지 감행한 모든 만행들의 범죄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여 트루맨이후 부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급 정보기관의 책임자 및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자기의 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보상을 할때까지 법정투쟁을 계속 벌려 나갈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우선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이것은 조미교전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조선인민앞에 지은 죄를 씻는 도덕적견지에서 보나 회피할수 없는 미국의 의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자 (2)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19일

수령결사옹위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모두의 투쟁과 삶의 제일 좌우명이다.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진 맹세도 **김정일**결사옹위정신으로 한생을 빛내이려는 드팀 없는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끝 없이 흐르고 무적의 군력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21세기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를 삶의 최대의 요구로, 투쟁과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순간을 살아도 수령결사옹위로 삶을 빛내이고 한생을 살아도 령도자의 사상과 권위, 안녕을 지키는 성스러운 길에서 헌신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총대는 혁명의 수뇌부옹위를 위한 총대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계속 심화시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인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우리는 ≪ㅌ. ㄷ≫열혈투사들처럼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는 실천가형의 충신이 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희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존심을 높이 떨쳐 나가야 한다.

민족적자존심은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1950년대에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 나 재더미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이 발휘하는 힘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 총 진군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 나가야 한다.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의것을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강한 민족자주정신으로 살고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선군시대의 애국자이며 참다운 민족주의자이다. 우리는 하나의 건설물을 세우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김정일**시대를 빛내이겠다는 높은 애국의 일념을 안고 모든 일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뜻 깊은 해로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제시되여 있다. 2월의 명절을 계기로 앙양된 기세를 고조시켜 나간다는것은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

당조직들은 2월의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로 이어 지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수령제일주의교양을 심화시켜 온 나라에 수령숭배의 열풍이 세차게 굽이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1950년대의 견인불발의 정신, 라남의 혁명적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충성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 태양절과 건군절을 뜻 깊게 맞이하겠다는 비상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떨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기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세는 대단하다.

천출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 있고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새 세기 혁명적진군은 백승의 서사시로 수 놓아 지고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과 넘쳐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높이 떨쳐 지는 영광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가자.

(끝)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1)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20일

오늘의 선군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의 위력이 최고의 높이에서 과시되는 시대이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선군시대의 새 기상이 약동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수 놓아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업적을 끝 없이 빛내여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며 그 걸음걸음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선군령도와 업적이 빛나고 있습니다.≫

수령의 령도업적은 혁명의 가장 고귀한 재부이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고 하여도 자기 령도자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 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하나의 거리, 하나의 건물, 한그루의 나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령도자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모든것을 끝 없이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이다.

언제나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천만군민을 불러 일으키시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다.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령도풍모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105만 8, 260여리에 달하며 그 길에서 1만 1, 326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선군정치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7년동안에만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걸으신 전선시찰의 길은 17만 7, 000여리에 달하며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인민군부대들만 하여도 근 700개 단위에 이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은 곧 현지지도의 자랑스러운 력사이며 그 길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 졌다.

지금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찾고 찾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언제나 총대로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제1선 전선길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초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은 위험이 뒤따르는 최전연의 초소와 외진 섬에도 어리여 있고 대자연개조전투장과 도시와 농촌마다에도 깃들어 있으며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거창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에도 새겨 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업적은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데서 우리가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다. 이 위대한 재부를 끝 없이 빛내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전진시키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는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되고 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빛나는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선군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한없이 다방면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해당 부문의 사업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제때에 옳바른 사업지침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고 계신다.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실 때마다 군대안에서 당과 수령의 령군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 있게 벌리며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밝혀 주시고 도, 시, 군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도시경영과 국토관리사업, 매개 단위의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제시하여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제시하신 과업과 방침들에는 없는것이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말씀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라남의 봉화가 더 높이 타오르게 되고 우리 조국의 위력이 모든 면에서 힘 있게 떨쳐 지게 될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로 이끌어 간 미제호전세력들의 책동과 그 반동성

≪특강≫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제1회
학사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최근 시기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615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 채택한 ≪3대 호소, 3대 제의≫를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 뜨거운 열의를 안고 적극 분발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호전세력들은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 보려고 온갖 발악적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부시행정부가 수립되면서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장애가 조성되고 북미대화와 함께 북남대화도 전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말 부시가 이른바 ≪연두교서≫라는 데서 우리 공화국을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라니 뭐니하면서 함부로 걸고든 것과 관련해서 다시 냉전의 기류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날로 우심해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호전세력들의 강경압살책동은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부시의 남조선 행각과 관련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제호전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강좌에서는 미제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것에 대해서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강의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에로 첨예화시키고 615북남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로 이끌어 간 미제호전세력들의 책동과 그 반동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조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바라는 요구이며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 세기의 국제관계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또다시 들고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21세기의 지향과 요구대로 조미관계문제에서 선행정부의 뒤를 이어 우리와의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보일 대신에 집권 첫날부터 그 무슨 대조선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니, 강경이니 뭐니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도수를 부쩍 높였습니다. 특히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고 그것이 이행되면서 북남관계가 대결에서 화해에로, 냉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딛이게 되는데 몹시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미정상회담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고 북미대화를 파탄시키고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관계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 미행정부가 출범해서 조미정상회담을 뒤집어놓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2000년 10월 미국무장관 메들린 알부라이트가 조선을 방문하였고 뒤이어 미국 대통령 클린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을 조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나라의 평화보장체제와 북미간의 관계개선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하기로 협약되어 있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서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당시의 조건에서 조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정상화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나라에서 55년동안 지속되어 오던 대결상태가 완전히 해체되고 우리 민족앞에는 단합과 통일의 대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대통령 클린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취소되게 되였습니다. 그의 공화국 북반부 방문을 가로막아 나선 것이 바로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시와 공화당의 강경보수파세력들이었습니다. 부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클린톤과 정권인계인수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북조선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미사이의 최대 현안인 북미사일문제해결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했으며 이보다 하루앞서 상원원내총무와 하원의장 등 11명의 공화당의 호전세력들은 클린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무분별한 북조선과의 협상타결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방북취소를 강박해나섰습니다.

이처럼 부시와 공화당의 호전세력들의 조미정상회담 뒤집기 작전으로 조미관계는 전면해결의 고비에서 적대적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조미정상회담뿐아니라 조미기본합의문도 뒤집어놓고 조미관계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책동을 감행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미기본합의문은 주체83(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조선반도 핵문제의 전면적 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본합의문에서는 쌍방이 조선의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해서 협력할 데 대한 문제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갈 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 조미기본합의문의 채택은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시는 대통령으로 출범하자마자 클린톤대통령이 담보서한으로 의무이행의 의지를 공식표명한 조미기본합의문의 전면 재검토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부시는 제네바합의이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기핵사찰과 화력발전소 대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핵사찰이라는 것은 경수로건설완공단계에서 받기로 된 핵사찰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화력발전소대체론이라는 것은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고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기 위한 생억지입니다. 2003년까지로 계약된 경수로건설을 무한정 지연시켜 놓은 것이 미국이고 플루토늄추출이 가능한 흑연감속로를 플루토늄추출이 불가능한 경수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도 미국인데 이제와서 조기핵사찰과 화력발전소 대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미국내의 많은 사람들속에서도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조미기본합의문 뒤집기책동으로 일단락되었던 핵문제가 다시 조선반도의 핵문제로 복잡하게 제기되고 조미합의는 사실상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시행정부가 출범해서 북미대화를 뒤집어 놓은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자 조미관계발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클린톤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백악관에 들어앉자 북조선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북미대화의 틀거리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을 흉심을 노골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부시는 자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설득과 이해보다는 힘의 과시를 통해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실권자들은 앞을 다투어 북과의 대화재계를 위해서는 대북 감시 및 검증 체제가 필요하다, 복과의 협상의제는 핵이나 미사일이외에 재래식 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강경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부시의 대북정책성명은 이미 강경파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검증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 세가지가 해결된 조건에서 정치, 경제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부시의 대북정책성명은 조미대화에 대한 거부이며 조미관계개선을 부정하는 성명으로서 우리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대북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강한 규탄을 받았으며 지어 미국정부내에서도 조미관계와 북남관계에 악화를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조미정상회담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놓고 북미대화를 파탄시켜 조미관계를 극도의 대결에로 이끌어 간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데에 그 반동성이 있습니다. 부시는 최근에도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 데서 우리 나라가 대량살육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들면서 악의 축이요 뭐요하면서 갖은 악담을 했습니다. 근래의 조미관계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서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온 민족은 조미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이끌어 가는 부시행정부의 교활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있습니다. 강철의 의지와 뛰어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결심하신 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승리합니다. 영장중에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선군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그 어떤 반공화국강경압살책동도 짓부시고 승리할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미제호전세력들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었으며 방어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떠난 부시, 끝나지 않은 분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시 미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자 시민사회단체의 부시방한 반대투쟁도 일단락됐다.

21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부시방한반대투쟁에 참여했던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부시 미국대통령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의 격렬한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의 현장을 진지한 자세로 취재해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평화적인 집회에 난입해 많은 부상자를 만든 경찰이 누구를 지켜주는 경찰인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라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했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부시가 방한을 통해 전쟁을 하지않겠다는 포장지를 우리에게 주고갔지만, 그야말로 알맹이는 그대로인 포장지가 아니겠냐≫며 부시방한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범국민대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 여성들은 항상 일상생활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경찰의 집회장 난입은 이런 우리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며 ≪폭력적인 경찰문화를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은 먼저 부시미대통령의 방한반대범국민운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이번 방한에서 부시대통령이 전쟁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 대표들은 미국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라 비판하고, 정상회담에서 양민학살, 미군범죄, 무기강매 등의 한국민들의 문제제기가 무시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대통령의 방한기간 동안 있었던 경찰의 법질서 파괴와 무자비한 폭력만행에 대해서는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가 보장될때 까지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결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깊은 각성을 가지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회단체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부시방한반대 시국농성을 해제했다.

한편, 부시 미대통령은 21일 오전 40시간 30분의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산 미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떠났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21

부시대통령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부시 방한반대투쟁 참여 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2002년 2월 21일

1.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온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우리는 먼저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한없는 감사와 드높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방문기간 내내 그의 전쟁획책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삼중 사중의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채 고독한 일정을 치러야 했다. 이는, 한반도전쟁획책과 대북 적대정책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의 상징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의 필연적 결과였다.

2. 이라크, 이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거듭 공언하던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 땅에서 ≪이북과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거대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함성에 영향받은 것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부시의 발언이 문자 그대로 이행되고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적극적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그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한이 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거나, ≪북한 정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는 등 이북 당국을 향한 적대와 군사적 대결로 일관하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고도 ≪북미 대화≫를 다시 거론하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명백한 이율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계와 우리민족을 우롱하는 기만전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더구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자행한 양민학살, 반세기 이상 계속되는 미군 범죄, 환경파괴와 인권유린, 불평등한 소파유지, 그리고 경제침략과 신자유주의 강요, 무기 강매 등 우리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들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설명, 납득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통행되고 있는 현행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오만과 독선, 탐욕스런 자세의 발로로서,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기간 동안 한국정부 당국이 보여준 법질서 파괴와 무자비한 폭력 만행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경악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찰은 19일 성남공항 부근 집회, 20일 청와대 부근 집회, 20일 종묘공원 범국민대회 등 실정법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합법적 집회장소에조차 수많은 전투경찰을 난입시켜 집회를 방해하는 무자비한 폭력난동을 자행하였다.

부시 미국대통령 체류 기간동안 이땅의 경찰은 무자비한 불법폭력난동을 마구 자행하였다. 우리는 인권침해사례를 널리 조사하고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부시방한반대투쟁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6.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한다는 깊은 각성을 다시금 하게 된다.

아울러 부시방한에 즈음하여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명동성당에서의 농성도 이 기자회견시점부터 해제하기로 한다.

지난 투쟁기간 내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기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따듯한 사랑과 넓은 참여를 아낌없이 전해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미 상의 점거 6명 국보법위반 영장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K대 학생회 전간부 정모(23.4년)씨 등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를 받아 왔으며 지난 18일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을 주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중 4명은 구속된 상태다. 정씨 등 6명은 모두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 22일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대중참여 후보 단일화 사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울산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최근 조합원총회 및 당원총회를 통해 지방선거에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동계와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두 조직이 정치적 합의가 아닌 대중적 결의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다음달 중순께 민주노총 지역조합원 6만5천여명과 민주노동당 지역당원 3천여명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예비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민주노총이 추천해 민주노동당이 공천하는 형식을 취해 선거에 출마한다.

애초 범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두 조직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세축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으나 시장 후보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가 커 실패했다. 그 뒤 지역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대중조직을 갖추고 있는 민주노총쪽이 조합원총회 등 다수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후보선출방식을 민주노동당쪽에 제의해 민주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응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후보선출 과정에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넓히고 침체된 각 노조 현장도 추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쪽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노동정책 불신임투표 및 지역본부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총회 때 나타난 투표율이 70~80%에 이른 점에 비춰 이번에도 3만~4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의 자치연대와 노동 농민운동 및 진보정당을 포괄한 민중연대회의가 함께 시민대중이 참여하는 ≪만인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및 5개 구청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백인소위원회≫를 구성해 개별단체에서 추천하는 예비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한 뒤 다음달 말부터 4월 중순 사이 만인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선출을 끝낸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한겨레신문

최종길교수 의문사폭로 유인물

유신정권 치하 최초였던 고 최종길 서울법대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 지난 73년 10월 최교수가 숨진 이틀 후 중앙정보부가 그의 죽음을 추락사로 위장.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하유인물≫이 재야를 중심으로 배포됐던 것으로 최근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유인물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기전에 배포된데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실≫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도 이 유인물을 입수, 사건조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교수가 숨진 1973년 10월19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1973년 10월21일자≫로 발행일이 인쇄된 이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의 제호는 ≪타도≫. 유인물은 ≪한국중앙정보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를 무참히 죽였다≫라는 제목의필사본으로 ≪중정은 최교수를 빨갱이로 몰아 5국 지하실 유치장옆 살인고문실에서 무참히 죽여놓고 시체를 승강기에 싣고 5국 5층 화장실에 끌고 가서 창문 밖으로 던져 자살로 가장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살인고문시간 19일 오후 1시~2시≫ ≪시체던진시간 19일 밤 10시40분≫, 그리고 ≪시체던진 장소 5국 지하유치장입구 계단 옆≫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최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적이 없고 사체에 고문의 흔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교수가 남산 중장분실 7층에서 밀려 떨어졌다는 당시 중정 간부의 진술 등 지금까지 진상규명위가 밝혀낸 사실들을 감안할 때 유인물은 비록 날짜 및 장소에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사건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타도≫는 70년대 유신치하에서 재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정기유인물로 1천여장 가량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당시 중정이 사건을 은폐하는 내용의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73년 10월25일 수일전부터 이미 사건의 ≪진실≫은 소리소문 없이 세인들에게로 퍼져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유인물 제작자를 만나 중정내 ≪내부고발자≫와의 접촉을 주선해 주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이 유인물을 사건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50대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인물 제작자는 당시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으며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중정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현희 공범 김승일 죽음 의혹있다

KAL기 사건 대책위(준), 워크샵 열어

87년 김현희 KAL 858기 사건의 공범인 김승일(당시 70세)의 사체를 부검한 황적준 박사(고 박종철 열사 부검 집도의)는 기도와 식도에서 독약 앰플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후 4시 반부터 천주교 인권회관 3층에서 열린 김현희KAL기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준)가 주관한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당시 당국이 발표한 KAL 858기 사건전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김승일의 죽음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했다.

KAL 858기 사건을 개인적으로 15년간 추적해오고 있는 현준희씨는 이날 워크샵에서 당시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일은 5개국어에 능통한 고도의 첩보원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70 노객으로 위도 잘라내고 신장도 하나밖에 없으며 다리를 절며 폐병까지 있는 중환자이며 일본어 외에는 어떤 외국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워크샵 참석자들 역시 독약 앰플 조각이 기도와 식도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고, 김승일이 사용했다는 액체 청산가리는 독성이 강해 앰플을 깨트리는 순간 기화해서 사람을 즉사시키므로 김승일이 앰플 조각을 삼켰다든지 김현희가 조금만 깨물어 살아났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김승일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부검의였던 황적준 박사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수지 킴 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건의 가리워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KAL 858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위의 새로운 의혹제기와 활발한 활동 계획은 앞으로 큰 폭발을 불러일으킬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 침해 가능성 높다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선다.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의 2월 회기내 처리를 합의하고, 20일부터 국회정보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입법 움직임이 농후하기 때문.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불거져 나온 이법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우선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국회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 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할 예정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또 기자회견이 진행된 뒤에는 바로 국회 정보위 소속의원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후 2시엔 공동집회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항의 팩스를 보내는 등 실천을 계획해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테러방지법의 제정 반대를 천명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 정당을 비롯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제인권법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연구검토절차를 밟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인권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명)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이민우기자
오마이뉴스 2002/02/20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공동기조보고

2002년 범민련 운동방향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남과 북, 해외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시기에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회의에 앞서 조국통일과 범민련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새 세기 첫해인 지난해는 조국통일운동이 소수 운동단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단체들의 연대, 단합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 되여 통일운동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된 뜻 깊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정세발전 속에 범민련은 지난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이 강화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6.15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었습니다.

범민련은 우선 민족통일의 통일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활동강령으로 내세우고 활동을 새롭게 벌여 해내외 온 겨레를 그 이행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반영하여 범민련 강령과 규약을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하고 활동방식에서도 종래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써 남북해외를 포괄하는 통일운동연합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남측본부는 개정된 강령규약 해설 선전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 지난날 범민련과 그 활동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범민련 운동에 공감하고 6.15 공동선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북측본부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간섭을 막으며 해내외 광범한 대중이 남북공동선언 지지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해외본부도 여러 계기들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일행사를 조직하고 광범한 동포대중들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벌여 나가는 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범민련은 다음으로 범민련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이고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범민련 결성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본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고 각계층 단체대표들과 같이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 통일대축전을 진행한 것은 범민련통일운동의 획기적 발전입니다.

남측본부는 지난날의 운동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민화협≫,≪7대 종단≫과 적극 연대,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벌여 나감으로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범민련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범민련은 또한 해내외 각계층 동포들의 통일염원과 지성이 깃들어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통일대기념비로 훌륭히 완공하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남측본부와 해외본부들에서는 기념탑 건설에 필요한 석재들과 공구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성심 성의껏 지원하였으며 북측본부도 비록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지만 새 세기 첫 광복절 전으로 완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범민련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 속에는 남과 북, 해외 각 지역본부 성원들과 공동사무국 성원들의 고심 어린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2돌과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 3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범민련은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호소, 3대 제의가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보면서 전적으로 지지 환영합니다.

범민련은 새 세기의 두 번째 해인 올해에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길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로,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계속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범민련의 각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해
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4.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자.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을 7천만 민족의 사랑을 받는 권위 있는 통일운동조직, 조국통일운동을 선도하는 참다운 대중조직으로 발전시키자.

범민련은 올해에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관철하는 길에서 7천만 동포 대중과 함께 싸워야 한다.

7천만 동포 대중을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확고히 선도하는 여기에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 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사명이 있다.

범민련의 지역 조직들과 기구를 튼튼히 꾸리고 상호간 연계와 단합을 강화하는 것은 범민련 운동의 주요 과제이다.

올해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들씌워진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합법화하기 위해 계속 완강히 투쟁하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길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6.15 시대에 걸맞은 창조적이고 대담한 사업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의 대중적 조직지반을 결정적으로 확대하자.

올해 통일행사들에서 범민련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높여 범민련운동의 활성화를 다그치자.

범민련은 2001년의 성과를 계승하여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며 각계각층의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를 성사시켜 범민련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준엄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은 이제 승리의 영마루에 올라섰다.

7천만 민족의 도도한 통일대행진은 민족 자주의 궤도 위에 들어섰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단합은 공고하고, 통일의지는 충천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2002년을 조국통일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전진의 해, 결정적 도약의 해로 장식하자.

6.15 공동선언 만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금강산 탐방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동안 남북화해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금강산 평화관광≫ 탐방길에 나선다.

유뉴스와 (주)현대아산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대학생 금강산 모꼬지 가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고려대, 서울시립대,숭실대, ≪한국≫외대,항공대,연세대 등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의 리더그룹이 남북경협사업의 현장을 먼저 체험하고 향후 대학생 금강산 통일체험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된다.

학생들은 22일 서울을 출발해 구룡연 · 삼일포 · 해금강 코스를 관광하고 북측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24일 귀경한다.

유뉴스는 지난해 12월 기획, 1월 초부터 시작한 ≪대학생 금강산으로 모꼬지 가자≫ 캠페인을 기획시리즈 기사와 이벤트 사업등을 통해 계속 진행중이다.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5)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제자주역량과 민중적 민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전국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반제자주역량의 중심권은 북측에 존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북측에도 민중적 민주역량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측에는 민중적 민주역량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존재하고 있다. 민중적 민주역량과 사회주의 혁명역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대 강령 가운데 자주강령은 전국적 판도에서 수행해야 할 강령인데 비하여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령이므로 그것은 남측 지역에 국한되어 수행해야 할 강령이다. 따라서 민주강령을 수행하는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민중적 민주역량을 더욱 강화・장성하는 일차적 책임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게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민중적 민주역량을 강화・장성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민주강령의 총적 목표는 일반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인권선진국≫의 건설이 아니며, 오직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통해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전선에게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게 되는 과업은, 미군을 철거하는 과업보다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업과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해설한 대로,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철거하게 될 것이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몫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이 된다. 민족민주전선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전선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광고

PDF자료집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노작
3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험
9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한민전 중앙위원회 축하문

조선노동당
19 조선노동당
20 조선노동당 당기
21 조선노동당 규약

역사
28 ㅌ. ㄷ.
29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당조직 (건설동지사)
30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31 국내당공작위원회
32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
33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
34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36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 6차대회

조선노동당 대회 주요문헌
49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두 제국주의 타승
55 항일무장투쟁(정치사전)
57 조국해방전쟁(정치사전)

90년대 조미대결전
59 조미대결전에서 쾌승
61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반도의 통일정세
64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사실상완성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66 조미 기본합의문
67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68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69 북남공동선언
70 조미공동콤뮤니케
71 모스크바선언

비전향장기수송환

조선노동당 창당 55돌

노동신문 정론
79 우리는 감회깊이 추억하리라

청년주체주의자대오
84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경로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앞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의 합의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측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지난해에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회담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북측은 6.15공동선언 뒤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장관급(상급)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어도 서울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북측이 마치 국가보안법 철폐원칙에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오해다.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전에는 남북(북남)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원칙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책임적 주체는 북측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아니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조・미 정치협상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체제가 철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기 시작하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은 자기들이 의존해왔던 ≪강한 보호자≫가 떠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 아니라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이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개편은 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 그 선언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문제는 이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만고악법 국가보안법은 양날이 선 저주스런 칼과 같다. 반통일의 칼날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의 칼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김대중정권은 6.15공동선언 이후의 정세발전에 맞게 국가보안법의 내용 가운데서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과 ≪불고지죄≫를 없애고 ≪고무・찬양죄≫를 적당히 손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서울회담이 성사되면 집권세력 안에서 개정파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파의 주장대로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의 칼날은 상당히 무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개정파의 요구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반민주의 칼날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교류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측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거된 개정판 국가보안법이 나온다면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판 국가보안법에 남아있는 반민주의 칼날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과제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면,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며 따라서 민족자주위업을 명실공히 단결된 민족주체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3)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의 본회담은 1972년 8월 30-9월 2일에 걸쳐 평양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후 1973년 7월 11-12일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분열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그 숭고한 사명이 있었다.

우리측은 본회담에서 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를 토의 해결하는데서 반드시 구현하여야 할 5개 원칙과 첫 의제에 대한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이 제기한 5대 원칙은 첫째로, 회담사업에서 주체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는 것이며 둘째로, 제기된 모든 문제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며 셋째로, 회담사업을 통하여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의 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며 넷째로, 모든 문제들의 토의에서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며 다섯째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이 응당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거족적인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들은 회담을 통하여 겨레들의 고통을 가장 빨리, 폭넓게 덜어주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함으로써 민족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다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 가장 적당한 것이었다.

우리측은 다음으로 본회담의 의정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우선 가족,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자는 것이며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문제에서도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측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밖의 방법들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현존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제거하며 이와 함께 가족, 친척의 실태를 요해하고(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며 인도주의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십자요해해설인원을 상대측지역에 파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가족, 친척의 범위를 본인의 호소가 아니라 제3자의 확인밑에 정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가족과 그의 ≪소식조사≫에 국한시킴으로써 될수록 그의 폭을 좁히자고 하였으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는 방법에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도 않는 이른바 ≪문서교환방식≫만을 고집하였다. 남조선측은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현존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제거하며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을 파견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극력 외면하고 반대하여 나섰다.

남조선측은 회담에서 기본문제토의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반공≫을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적 모략소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은 제7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의제 제1항 토의에 머무른채 아무러한 진전도 보지 못하였으며 특히 남조선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파쑈적 폭압과 우리측을 반대하는 ≪반공≫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1973년 7월중순 이후부터 고착상태에 빠졌다.

회담에서 남조선측이 감행한 행동은 그들이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와 회담을 벌여놓고는 시간이나 보내면서 인민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파쑈통치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권력을 지탱하는데 이 회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끝)